

LOVE & HEART

Weekly News

2020년표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임을 증명하자! (고후5:17)

20-21-54호. 2020. 5. 31. 주일

죄로부터 해방된 후, 환난을 당하는 이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렘 24:7)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미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끝나고 안식을 누렸으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 이후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면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다고 한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멸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사사기11:10)”

어쩌면 가정에서부터 진정으로 후대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가나안 땅의 다른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구분할 줄 모르고,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이방 신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된다. 이것은 영적 통제권의 문제이다. 즉, “누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통제해야 할 백성들을 다른 신이 다스린다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이사야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이사야26:13)”라며 영적 상황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방 신을 섬긴다는 의미는 바로 “관할(rule over) 즉,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에 관계되어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이런 관점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오기 전의 유다 사회의 신앙적 분위기를 보면서 현재 포로로 잡혀 와 있는 상태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신앙적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은 내가 우상숭배하는 존재임을 인식시켜 주셔야 했으며,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신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 스스로 “나는 네 대적이다.(예레미야21:13)”라고 할 정도로 표현되었다. 이 분노는 유다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이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섬겼기 때문이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든 이유를 “너를 위하여(출애굽기20:4)”라고 하신다. 인간이 그토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을 당하면서도 다른 신들과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유는 자신들의 삶 때문이었다. 이 땅에서 삶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이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삶을 사는 것을 전제로 필요한 것이다.

“너희 율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골로새서3:9)”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도록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함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misuse) 부르지 말라고 하셨다. 이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기 우상숭배적 존재 즉,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름을 빌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이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하며 내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한 즉, 나의 탐심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대적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지음 받은 존재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가로채는 우상 숭배자 곧 옛사람의 존재이다.

다니엘의 회개 기도는 이런 영적인 면에서부터 출발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다른 신들과 우상을 분별할 줄을 몰랐다. 그러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다른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닌 여호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별하고 알아보아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신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예레미야24:7)”을 주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가로 채지 않는 새 생명을 지닌 자로 살게 해준다. 새 생명을 지닌 성도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고 마시든 모두가 주를 위하여 한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삶, 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자기 우상숭배적 삶을 산다면 바벨론의 포로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자기 우상숭배적 존재 그리고 죄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지닌 존재이다. 따라서 여이런 존재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주관적 역사로만 가능하며, 이것을 깨닫는 것은 수많은 영적 존재들 중에서 여호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 분별하지 못하는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이다. 그러나 분별이 되면 그런 분별없는 신앙이 잘못된 줄 알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참 하나님의 역사와 다른 신들과 우상의 영적인 활동도 알았기에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 있는 이유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기도는 “내게 참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내가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서.”이어야 한다.

(김윤섭 청년)

설교를 듣고

나의 삶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는 소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분명히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믿습니다’를 입술로 외치며 기도하곤 했다.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숭배해 왔다는 것을 참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시어 알게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숭배 할 수밖에 없는 자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지만 내가 어떤 신을 숭배하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라는 건물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열심을 내었다. 세상의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더욱 열심을 내었다. 그 복이 누가 주는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참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알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세상의 복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먼저 나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믿음 안에서 발생하는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오로지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 또 나의 탐심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 있는 이유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 나는 이제야 나의 상태를 보며 절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참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내가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한다.(강은나 장로)

하나님과 돈
(삶의 생존과 영혼 생명의 조건인 "돈" 그리고 "믿음" 中)

풍족한 삶의 결과

걱정스런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애굽을 나와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서 고생 아닌 고생을 하였다. 사람 편에서 보면, 삶의 환경과 조건이 변했으니 고생한 건 사실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에게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셨으니 삶의 어려움이야 인간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무조건 내팽겨 치고 나 몰라라 하신 분은 아니다. 그러나 때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달랐다.

처음 출애굽하여 고라의 자손들과 함께 하던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할 때에 한 말이 있는데(민수기 16:12-14,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네가 우리를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함), 이들의 말 중에는 애굽의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한 표현이 있다. 그리고 도리어 광야 사막에 서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왜 인도하지 못하냐고 따지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던 자들은 다 응징을 받았다. 종살이 하던 시절, 즉 생존의 문제에 늘 집착하여 과거에 집착하던 자들, 그들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가나안 땅,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특이하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바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참으로 이상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배부르고 살찌게 해주신 거라면 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가 좀 덜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겠건만, 하나님은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하시며 확신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사는 생존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 생존의 문제는 인간이 섬기는 두 주인 중에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그 생존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주인이 된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의 주인은 재물, 즉 세상 임금인 마귀가 되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를 유다서(유1:5)에서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믿음이 없어서 버림받게 될 것을 걱정하고 계시다. 걱정스런 예정된 생존의 문제에 대한 축복 앞에서 삶의 생존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CHURCH WITH JUSES

| 주기도문 강해 |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에 대한 의문 그리고 의견

의문 2.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주님은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정적 표현을 하신 것일까? 땅에 있는 하나님도 있다는 의미인가?

독사의 자식들인 존경받는 종교인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불렀다. 주님도 자신의 귀신 내어 쫓음을 귀신들린 행위로 말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독사란 당연히 마귀 사탄을 말한다. 주님께서 오셨을 당시, 이미 선민(選民)이라 불린 나라와 백성들은 모두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었다. 하물며 더욱 무서운 일은, 하나님께 선택 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유일하신(one and only)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의 아버지를 마귀라고 평가하신 점이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난 자식들이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를 낳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마귀의 손아귀에서 땅에서 육체대로 살고 있었다. 사람은 모두 땅의 아버지인 마귀를 섬기고 있다. 땅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은 영이 죽어 있는 존재로서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다.

육의아버지가아닌 영의아버지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의 아버지라고 하였다. 사람이 순종해야 할 대상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죽은 영의 상태로 살아갈 때에는 육체적 존재로서만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영적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땅의 아버지인 마귀를 섬길 수 밖에 없다. 섬기는지도 모르고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귀를 섬기는 지조차도 모른다. 사람이 비참한 것은 사람이 자신의 이런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 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마귀의 영적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사람이 거듭날 때뿐이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 주시고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는 자의 소망이 땅에 것이나 하늘에 것이냐를 묻는 것이다. 즉 기도하는 자가 땅의 사람이나 하늘의 사람이나를 스스로 확인해보라는 의미이시다. 보물 곧 소망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자의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 따라 누가 그를 다스리고 그 다스리는 신이란 존재를 섬기는지 결정된다. 베드로 사도는 땅에 보물을 쌓고 사는 자들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람이 지녀야 할 소망이 아니다. 이는 땅의 세상적 소망을 갖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죽은 자로서의 삶을 더욱 더 죽어가게 하는 삶을 사는 것 뿐이라는 의미이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이 지녀야 할 살아 있는 소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살아 있는 소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를 제시한다.

사람이 산 소망을 지닐 수 있는 경우는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한다. 사람의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거듭남은 사람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있지 않다. 사람의 거듭남의 주권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있는 부활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산 소망을 지니고 이 흑암의 세계에서 살 수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분명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다시 그 부르는 자의

지금 현재

성 상 모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실재하던 것이 오늘 실재하지 않는다.

미래는 오지 않았다.

미래는 오지 않았기에 오늘 실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과거 때문에 아파하고

미래 때문에 불안해 하네.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려 하네.

과거와 미래를 건어버리니

오늘 현재만 남았다.

그리고 보니 오늘 '지금 현재'가

언제나 변함 없는

영원한 시간이었구나.

지금 내가 현재 시간으로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이제야 알았네.

목회중점

십자가 중심의 구속사적 설교
장로교 개혁주의에 입각한 성경 신학적 복음전파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 신앙교육
그리스도의 군사로써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양육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지닌 기독교 영적 리더십 교육

사명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권적으로 각 개인에게 역사하신 인간 창조 목적대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교회

비전

전 성도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주님과함께하는교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99-7, 3층

☎ 032. 505. 1660

🌐 https://churchwithjesus.modoo.at

담임목사 성 상 모